

후기청소년의 진로발달 궤적에 관한 종단연구 : 경제적 불안정과 여가의 영향을 중심으로

노 법 래*

초 록

본 연구는 후기청소년 시기를 경험하고 있는 고등학생의 진로발달 궤적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종단적으로 살피는 것에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청소년의 진로발달과 관련한 기존 연구들이 다양한 이론적, 실증적 기여를 축적하고 있으나, 횡단적인 연구에 그치거나 영향 요인을 포괄적으로 고려하는 연구 모델 구축의 한계를 보인 경우가 많았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청소년의 발달에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에서 많이 다루지지 않은 경제적 불안정 경험과 청소년의 여가활동을 주요 요인으로 삼고 비교적 포괄적인 분석 모델을 구성하고자 노력하였다. 본 연구는 <청년패널조사(YP2007)> 데이터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진로발달 수준을 기술적으로 살펴보고 발달 궤적에 대한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빈곤 지위의 변동을 중심으로 본 경제적 불안정 경험은 청소년의 진로발달을 크게 후퇴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여가활동의 질적 측면으로서 다양한 사회문화 활동을 경험한 청소년일수록 진로발달의 수준이 높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외에도, 성별, 성적, 또래관계, 진로지도 경험, 모의 관심 등 개인, 학교, 가정을 아우르는 다양한 요인들이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말미에는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진로발달을 도울 수 있는 정책적 개입을 위한 몇 가지 함의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 진로발달, 후기청소년, 빈곤, 여가, 잠재성장 모형, 종단연구

* 한림대학교 자살과 학생 정신건강 연구소 연구원, seeme@daum.net

I. 서 론

꿈을 꾸지 않으면 미래도 없다. 한국의 청소년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얼마나 꿈꾸고 있는가. 그 꿈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이 본 연구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소박하지만 중요한 질문이다. 교육사상사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친 장자크 루소(2006)의 〈에밀〉의 도입부는 “조물주의 손에서 나올 때 모든 것은 선했지만, 인간의 손 안에서 모든 것은 타락한다”는 선언으로 시작한다.

루소의 주장을 지금 시점에 현대적으로 적용한다면, 이를 인간의 성장을 위해서 일체의 외부적 개입을 부정하는 것으로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자율적이고 건강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기계적이고 주입식 형태의 교육, 훈련보다는 그들 스스로 자신의 재능과 품성을 개발해나가도록 돕는 것이 사회의 책임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일 것이다. 본 연구의 주제인 청소년의 진로발달 문제와 이를 관련지어 생각해 보면, 성숙한 직업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자신의 진로발달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학교나 가정에서 이뤄지고 있는 교육이 한국의 청소년이 스스로 꿈꾸고 준비하는 존재로 자라나기 위해 얼마나 실질적인 뒷받침과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비판이 있어왔다.

한편으로 한국 사회는 갈수록 청소년의 바람직한 발달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토대를 흔드는 사회적 위험이 심화되고 있다. 고용시장의 불안정과 양극화, 빈곤과 격차 사회의 심화 등이 그와 같은 사회적 위험의 기저에 도사리고 있다. 일본사회를 “희망 격차사회”라고 진단한 山田昌弘(2004)의 주장은 이와 관련해서 음미해볼만하다. 그는 경제적 불안정과 가족제도의 약화 등에 의한 사회적 위험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입시위주의 기존 “파이프라인” 교육 시스템에 “누수(漏れ)”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직업인으로서의 성장을 돕는 교육 시스템이 아니라 입시와 입시결과에 따른 직업선택이라는 “파이프라인”식 교육과정이라는 기존의 시스템에 더해서, 사회의 불안정성의 심화로 인해 각각의 “파이프라인”에 중도탈락이나 부적응과 같은 “누수”가 심해지고 있고, 이 양자의 효과가 상호 더해져서 일본의 격차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조차도 쉽게 가질 수 없는 사회로 되고 있다는 것이 일본의 교육 및 청소년 문제를 바라보는 저자의 기본적인 시각이다.

교육 상황과 사회적 환경의 측면에서 한국의 사정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를 진로발달이라는 본 연구의 주제와 연관 지어 생각해 본다면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고 고민하는 성장 과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의 부재와 더불어 성장의 물적 토대와 관련한 불안정성이 한국 사회에서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의 대상인 후기청소년기를 경험하고 있는 고등학생들은 입시위주의 교육시스템의 변화가 거의 없는 가운데서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의 산업구조 및 고용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경제적 불안정성이 심화되던 시기에 대부분의 청소년 시기를 보낸 연령집단이다. 이와 같은 사회적 변동 가운데서 성장한 청소년들의 진로발달 수준을 검토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으며, 아울러 머지않아 직업시장에 참여하게 될 새로운 인력들이 어느 정도 직업인으로서 필요한 내면적 성숙을 이루고 있는가를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특히 분석 대상에 포함된 대부분의 청소년들의 부모세대는 90년대 말 외환위기의 충격을 고용과 소득, 가족의 위기 등 제측면에서 직접적으로 받았던 50대 전후의 연령집단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된 영향요인인 경제적 불안정 등의 그들 자녀의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피는 것은 연구의 의미가 있다 할 수 있다.

성공적인 진로발달은 건강한 직업인으로 성장하는데 있어 중요한 선행조건이다. 본 연구는 성인으로 넘어가는 후기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는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그들의 진로발달의 궤적을 살피고 그들의 삶을 이루고 있는 다양한 영향요인을 폭넓게 검토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앞서 언급한 “희망격차사회”의 논의와 관련 지어 청소년들이 성숙한 직업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물적 환경의 중요성과 함께, 그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흥미를 찾고, 스스로 선택한 활동을 통해 정서적 성장을 도모하는 경험이 지닌 가치에 분석의 초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자와 관련해서는 빈곤지위 변동에 의한 경제적 불안정을 후자와 관련해서는 여가활동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을 중심으로 실증적인 검토를 하고자 한다.

II. 문헌 검토

진로발달 혹은 진로성숙은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구체적 행위나 정서적 혹은 인지적 상태를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다차원적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¹⁾ 본 연구의 목표와 관련해 진로발달을 둘러싼 다양한 개념적 논의는 최소화하기로 한다. 다만 요약적으로 정의하자면 진로발달이란 직업인으로서의 발달 과업을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개인의 준비수준을 의미한다.(Savickas, 1984: 222) 따라서 본 연구도 이와 같은 개념적 정의를 기반으로 논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다.

관련 연구 가운데서 경제적 불안정과 진로발달 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룬 경우는 많지 않았다. 다만 빈곤과 진로발달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국내에서 일부 있었다. 빈곤과 같은 취약한 물질적 기반이 청소년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구인회, 박현선, 정익중, 김광혁, 2009; 박현선, 정익중, 구인회, 2006), 빈곤과 진로성숙 사이의 관련성을 실증적으로 규명한 연구도 지금까지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최근 진로발달 관련 연구 가운데서 박재은, 이정애, 이지연과 정익중(2011)의 연구가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 횡단면 자료에 대한 이들의 분석 결과, 중학생의 경우 진로발달에 대한 빈곤의 주효과와 아울러 부모애착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경로에 대해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들의 연구에서 고등학생의 경우는 두 경우 모두 통계적 유의미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 저자들은 샘플과 분석 모델의 특성상 자신들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고등학생의 진로성숙에 빈곤이 영향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경제적 후생수준을 의미하는 지표로서 빈곤이 특정 시점에서의 정태적 개념을 의미한다면 본 연구에서 경제적 불안정은 빈곤상태의 동태적인 변화와 관련 있는 개념이다. 빈곤의 동태적 상태를 파악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청소년의 발달에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정서적인 위축감이나 상대적 박탈감은 한 시점에서의 상대적인 경제적 지위에 의해서도 느낄 수 있지만 생애사 가운데서 과거의 지위와의 비교

1) 관련 기존 연구에서 용어와 관련하여 진로발달, 진로성숙, 진로성숙발달 등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표현의 개념적 차이를 따로 두지는 않는다. 다만 연구의 중심이 발달과정이라는 종단적 측면에 있으므로, 여기서는 진로발달이라는 용어로 통일하기로 하겠다.

를 통해서도 느낄 수 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경제적 지위와 관련하여 과거의 자신은 특히 중요한 비교 대상일 수 있으며, 경제적 지위의 하락은 내면적인 자아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 지위의 하락과 이로 인해 야기되는 삶의 변화 사건(life-change event)들은 삶에 대한 불안정감과 예측불가능성을 높여 안정적인 자아개념(self-concept) 형성을 방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위기 상황은 자아 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진로발달에 부정적인 충격을 줄 수 있는 것이다.

경제적 불안정이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는 크게 두 가지 경로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전통적인 빈곤 개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불안정이 직접적으로 자원의 부족 상태로 이어져 청소년의 발달에 필요한 물질적 자원의 결핍 상태를 야기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제적 불안정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부정적인 심리적 영향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경로이다. 경제적 지위의 불안정으로 인한 스트레스, 우울감의 증가나 자기효능감의 감소와 같은 부정적인 심리상태의 변화는 진로발달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이 있는 연구로서 신효정과 이문희(2011)는 스트레스나 우울이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부정적일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박미진, 최인화와 이재창(2001), 정윤경(2002)의 연구는 심리적 불안이 청소년의 진로결정이나 진로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고했다. 경제적 불안정은 심리적 불안을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따라서 한 시점에서 측정된 빈곤의 영향을 넘어서 상실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의 증대로 인해 부정적인 심리적, 인지적 결과를 가중시킬 수 있는 경제적 불안정성 자체를 포착하는 것 또한 분석적 의의가 크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여가활동과 진로발달간의 관련성을 다룬 국내 연구는 거의 없었다. 국외 연구의 경우 미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여가활동 내에서 자신감과 통제감을 더 느끼는 학생일수록 직업적 목표와 흥미 및 적성 등에 있어 더 명확한 인식을 하고 있음을 발견한 Munson과 Savickas(1998)가 대표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의 연구는 여가활동에 참여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 선택과 관련한 결정 능력과 직업세계에 대한 탐구에 더 높은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Tinsley와 Tinsley(1986)는 여가활동이 삶에 미치는 이점은 활동 그 자체의 내용을 넘어서 여가를 향유하는 개인의 현상학적인 경험 그 자체에 의해 도출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여가가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Kelly와 Kelly(1994)가 주장한 것과 같이 특정

영역의 기능과 기술의 습득과 같은 이점과 관련 있는 여가활동의 내용적 측면과 함께 여가를 통해 얻게 되는 자기효능감이나 자기통제감과 같은 인지적 차원 및 즐거움이나 자유로움과 같은 정서적 측면의 이점 또한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여가활동을 통한 이와 같은 긍정적 결과는 진로성숙에 유익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여가활동이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적 구조도 앞서 논의한 빈곤과 마찬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여가활동은 진로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기효능감과 같은 긍정적인 심리상태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여가가 지닌 유희적 속성으로 인해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 심리상태를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기효능감이 진로발달에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음을 검토한 최수정(2007)의 연구는 위에서 언급한 부정적인 심리적 상태가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연구와 함께 검토해볼만 하다. 이와 같은 기존 연구결과들은 청소년의 여가활동의 내용을 가용할 수 있는 자유시간의 양에 대한 측정을 넘어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내용적 측면을 복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본 연구는 진로발달의 발달궤적을 살펴본다는 차원에서 종단적인 연구를 지향하면서, 연구 문제와 관련된 핵심적인 설명변수의 순효과를 타당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다양한 영향요인을 동시에 분석 모델에 투입하는 것에 주안점이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연구의 관심 변수 중심으로 분석 모델을 구성하는 경향성이 짙었다. 신희경과 김우영(2005)이나 김성아(2012)의 연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대한 요인들의 영향력을 타당하게 검토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변수들을 포괄적으로 분석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요 관심 변수인 경제적 불안정, 여가활동 이외에 기존연구에서 제시되었던 요인들을 중심으로 크게, 가족 변수, 학교 변수 및 인구학적 변수를 함께 고려함으로써 비교적 포괄적인 분석모형을 구성하고자 노력하였다.

Ⅲ. 분석방법

1. 분석 데이터

본 연구에서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청년패널조사(YP2007)〉 데이터를 활용한다. 분석에는 2007년 고1이었던 그룹과, 2008년에 고1이었던 그룹을 결합하여 고등학교 3년 동안의 종단자료를 구성하였다. 〈청년패널조사(YP2007)〉 데이터는 본 연구의 분석 모델에서 고려하고 있는 요인들을 비교적 충실하게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종단 데이터라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다. 결합된 자료의 케이스 가운데서 분석 모형에 투입되는 변수를 온전하게 포함하고 있는 케이스를 분석에 최종 활용했으며, 최종 분석 케이스는 786명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변수에 해당하는 진로발달을 측정하는데 사용된 항목은 21개이다. 이들 항목은 직업 계획 수립(예, “나는 내 또래에 비해서 뚜렷한 진로 계획을 갖고 있다”), 진로 선택의 독립성(예, “나는 어른들의 결정보다는 내가 원하는 진로를 선택할 것이다”), 진로에 대한 관심(예, “나는 아직 진로를 결정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진로에 대한 자기효능감(예, “직업에서 요구하는 기술이 부족하다”) 등과 같은 여러 하위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그림 1은 결과변수에 해당하는 21개 진로발달 관련 문항에 대한 하부요인 분석 및 신뢰도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1의 왼쪽 그림은 각 요인의 고유값(eigenvalue)의 크기를 나타낸 스크리 도표(scree plot)이다. 그림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고유값의 크기가 1이상인 요인은 3개로 드러났으며, 5번째 요인부터 고유값의 변화량에 변곡점(inflexion point)이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진로발달 척도의 하부요인이 3~5개 수준에서 탐색적으로 검토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1의 오른쪽에는 하위요인은 5개로 설정했을 때의 위계적 요인 구조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그려져 있다.²⁾ 다만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 진로발달 척도의 내적 구조에 대한 분석은 아니기에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그래프의 제시 수준에서 줄이도록 하겠다. 전체

2) 그림을 보면 문항번호가 간혹 빠진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1차년도 자료에 있던 진로발달 관련 문항들이 이후 조사에서는 일부 빠졌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항 번호를 1차년도 문항 번호를 기준으로 표기하였다.

문항 간 신뢰도 수준은 Cronbach's alpha=.84, Gamma six=.89 수준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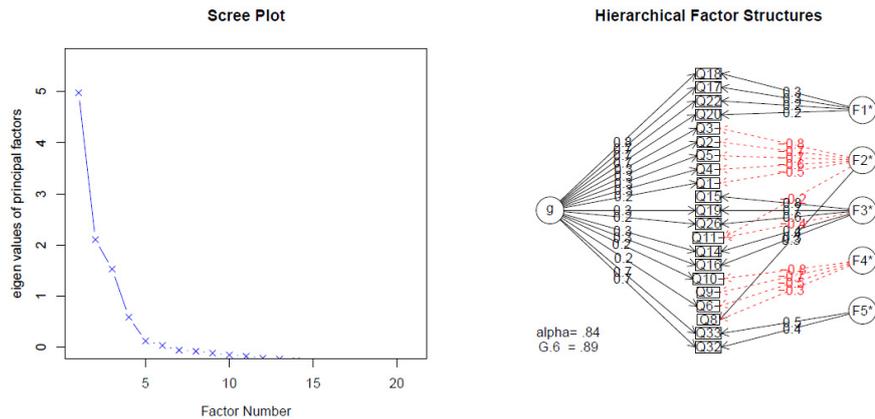


그림 1. 진로발달의 하위 요인 및 신뢰도 분석 결과

2. 분석모델

그림 2는 진로발달에 대한 본 연구의 분석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삶을 에워싸고 있는 다양한 영향변수를 비교적 포괄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크게 가족변수와 학교변수 및 여가와 인구학적 속성에 포함되는 변수를 분석에 포함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결과변수로서 진로발달의 궤적을 포착하기 위해서 세 시점의-고1(H1), 고2(H2), 고3(H3)-진로발달문항의 합산 값에 대한 잠재변수를 구성하였다.

가족 특성 변수이자 본 연구의 주된 관심 변수 중에 하나인 경제적 불안정을 포착하기 위해서 진로발달과 마찬가지로 각 시점에서의 빈곤지위를 측정변수로 하는 잠재변수를 구성하여 분석 모델에 포함하였다. 모델에 투입된 다른 변수들과 마찬가지로 빈곤 지위에 대한 측정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서 자세히 기술하도록 하겠다. 빈곤지위의 변화궤적을 나타내는 두 잠재변수인 빈곤지위의 초기값과 빈곤지위의 기울기를 이에 각각 대응하는 진로발달의 잠재변수들과 연결하여 경제적 불안정과 진로발달 궤적 간의 관련성을 살피기로 한다.

여기에 가구 특성 변수로서 기존의 관련 연구(박완성, 김미숙, 2009; 박재은 외, 2011; 이경희, 윤미현, 2011; 이유경, 류재윤, 방홍복, 2012; Choi, Hutchison, Lemberger & Pope, 2012 등)를 참고하여 빈곤지위의 변동에 아울러 부모의 학력, 청소년에게 인지된 부모의 관심을 아울러 가족의 특성 변수로 포함하였다. 빈곤 지위를 비롯한 각 변수의 조작적 정의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다.

본 연구에서 경제적 불안정과 함께 주요 영향 요인인 여가와 관련해서는 여가시간의 크기와 사회문화활동 수준을 변수로 투입하였다. 전자는 여가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가용한 시간적 자원의 양적 수준을 의미한다면, 후자의 경우는 여가활동의 내용이 얼마나 적극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담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질적 차원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생활과 관련된 변수로서 학교유형, 학생에게 인지된 교사와의 관계, 성적, 진로지도 경험 및 또래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함께 모델이 포함되었다. 이들 변수는 기존 연구(신희경, 김우영, 2005; 박재은 외, 2011; 이경희, 윤미현, 2011 등)에서 투입된 변수들을 참고하였다.

아울러 인구학적 변수로서 성별을 통제변수로 투입했으며, 본 연구에서 활용된 데이터가 일 년의 차이를 두고 있는 두 코호트의 자료를 결합한 것과 관련해서 코호트 변수도 함께 분석모델에 투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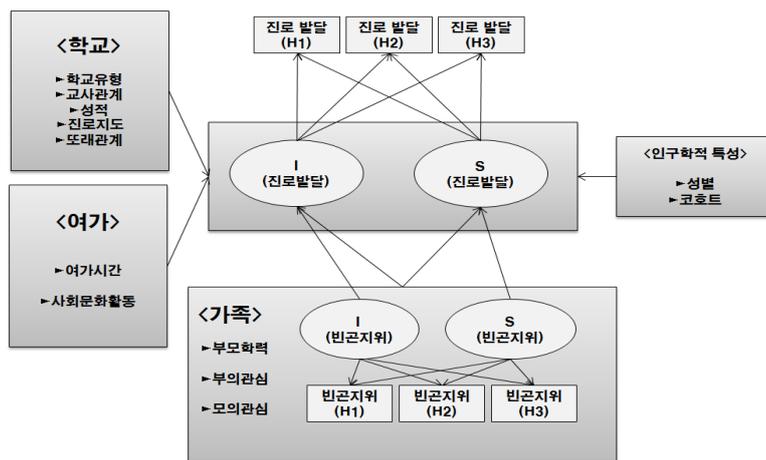


그림 2. 진로발달에 대한 연구 모형

3. 변수 정의

표 1은 본 연구의 분석 모형에 포함되는 변수와 측정 및 요약치를 간략히 나타낸 것이다. 측정 빈도에 따라 변수의 특성을 대별하면 진로발달이나 빈곤경험과 같이 매 시기 측정치가 모형에 포함되는 변수와 분석기간인 고등학교 3년간의 값을 통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와 데이터의 제공 한계로 인해서 일정 시점의 측정값을 사용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일정 시점의 측정값을 사용하는 경우는 부모의 관심이나 교사, 또래와의 관계 등과 같이 2008년 부가조사항목에 포함되었던 변수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 외에 세 시점에 모두 포함되었던 변수의 경우는 합산이나 평균값 등을 각각 사용하였다. 변수의 속성이 연속변수인 경우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괄호로 구분하여 나타냈으며, 명목변수인 경우는 하위그룹별 비율을 퍼센트로 나타내었다.

빈곤지위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먼저 각 가구의 소득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가구소득의 합산액을 가구원수의 루트값으로 나눈 가구균등화소득을 구하였다. 각 년도의 가구균등화소득 중위값의 50%수준을 빈곤선으로 정하고, 비빈곤가구의 경우는 0을 빈곤가구의 경우는 빈곤선 대비 빈곤선과 소득간의 차이(빈곤갭)의 비율을 빈곤지위로 조작화하였다. 따라서 이 값이 클수록 빈곤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문화활동의 수준의 경우 주요 여가활동의 내용을 3순위까지 묻고 있는 설문 문항을 활용하였다. TV시청이나 인터넷 검색과 같이 사회적, 문화적 활동으로서의 성격이 상대적으로 약한 영역을 제외한 활동(문화, 스포츠, 사회적 혹은 종교적 참여)을 1순위 여가활동으로 응답한 경우는 2점을 부여하고, 2순위와 3순위에 응답한 경우는 각각 1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사회문화활동 수준을 측정하였다. 따라서 세 항목 모두에서 TV시청이나 인터넷 검색이 아닌 활동을 여가활동을 하는 청소년의 경우는 최고 4점이 되며, TV시청이나 인터넷 이외에 별다른 여가 활동이 없는 대상자의 경우는 0점으로 사회문화활동 수준을 부여했다.

표 1
변수 정의

변수 종류	변수명	조작적 정의	관련 요약치
결과 변수	진로발달	각 시기별 6점 척도로 구성된 21개 진로발달문항 응답의 총합 (역코딩이 필요한 문항의 경우 반영)	- 고1: 84.53(10.66) - 고2: 85.95(9.91) - 고3: 87.44(10.41)
주요 설명 변수	빈곤지위	상대빈곤선 대비 빈곤심도의 비율	평균빈곤율: 11.81%
	사회문화 활동 수준	사회문화활동수준 측정값 (2008)	1.07(.92)
통계 변수	성별	남/여	- 남: 52.9% - 여: 47.1%
	코호트	2007년 고1/2008년 고1	- 2007년: 53.2% - 2008년: 46.8%
	부모 학력	부모의 교육연수의 평균(2007)	14.12(2.69)
	부의 관심	4점척도로 측정된 아버지의 관심에 대한 4가지 항목 합산값(2008)	17.32(3.37)
	모의 관심	4점척도로 측정된 어머니의 관심에 대한 4가지 항목 합산값(2008)	19.08(3.19)
	학교유형	비실업계(일반고, 특목고, 영재고 등)와 실업계	- 비실업계: 79.1% - 실업계 : 20.9%
	교사관계	교사와의 관계 만족도에 대한 5점 척도 (2008)	3.50(.61)
	성적	고등학교 3년간 성적수준의 평균	3.38(.77)
	진로지도 경험	고등학교 3년간 각 학년별 진로경험의 총합	.82(.83)
	또래관계	친구와의 관계 만족도에 대한 5점 척도 (2008)	3.95(.50)
여가시간	하루 평균 자유시간(2008)	2.16(1.80)	

4.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분석은 크게 두 단계로 이뤄진다. 우선 첫 단계에서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진로발달의 궤적이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별, 학교유형, 빈곤경험, 여가활동의 특성을 중심으로 집단 간 발달 궤적의 차이를 그래프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확증적 분석에 앞서 주요 집단별 진로발달 궤적의 차이에 대한 기술적 수준의 결론을 도출하였다.

본격적 분석이라고 수 있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잠재성장모형분석(latent growth model analysis)을 활용하여 진로발달에 궤적에 대한 각 영향변수의 영향력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가 진로발달의 궤적이라는 종단적 변화에 대한 다양한 변수의 영향력을 검토하는데 분석의 초점이 있으므로, 잠재성장모형분석은 이에 적합한 분석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단시점의 빈곤의 영향력을 넘어서 경제적 불안정 자체를 분석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종속변수인 진로발달과 함께, 빈곤경험도 시간변동변수(time variant variable)로 함께 투입하였다. 잠재성장모형의 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CFI, RMSEA, SRMR 등의 통계치를 바탕으로 모델 적합도를 검토하고, 각 요인들의 통계적 유의도를 중심으로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IV. 분석결과

1. 주요 집단별 진로발달 궤적 비교

그림 3은 비실업계군과 실업계군 및 그에 속한 남학생과 여학생의 학년별 진로발달 궤적을 나타낸 오차막대 그래프이다. 중앙의 원의 위치는 평균을 나타내며, 원을 중심으로 아래위로 뻗은 선은 95%신뢰범위 내에서 평균이 위치할 수 있는 구간을 의미한다.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조사 대상 집단의 진로발달은 학년의 상승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증가의 기울기는 실업계군에 비해

비실업계군에서 좀 더 높은 양상을 보였다. 특히 실업계군의 경우 고3으로 진입하면서 진로발달 수준의 증가 추세가 완만해지는 양상이 나타났다. 또한 전학년에 걸쳐 비실업계군이 실업계군에 비해 진로발달 수준의 평균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차이와 관련해서는 비실업계군과 실업계군에 걸쳐 여학생의 진로발달 수준이 남학생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비실업계군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p < .05$)에서 성별의 차이가 관찰되었으나 실업계군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에서의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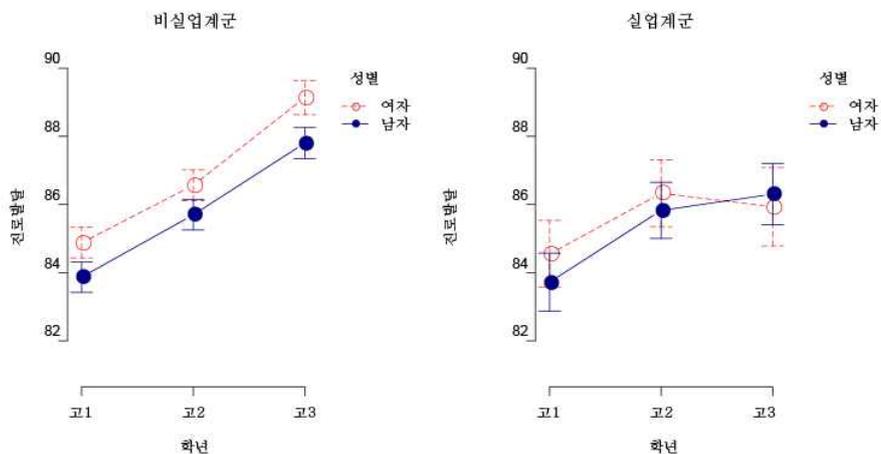


그림 3. 성별에 따른 진로발달

그림 4는 각 시기별 빈곤경험-여기서는, 가구소득이 빈곤선 이하가 된 경험-여부를 기준으로 학년별 진로발달 궤적을 살펴본 그림이다. 비실업계군의 경우 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의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실업계군의 경우는 빈곤을 경험하는 학생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진로발달 수준이 퇴화하고 그 차이가 통계적 유의미성을 띄고 관찰되었다. 실업계군의 경우 한 시점에서 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간의 차이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종단적으로 보았을 때 그 궤적이 차이가 날 수 있음을 탐색적으로 검토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궤적의 차이는 비실업계군의 경우도 일부 나타나는데, 빈곤경험이 없는 집단의 경우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상승하

는 발달궤적을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고3수준에 이를 때 발달이 비록 약한 수준이지만 다소 퇴보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와 같은 궤적의 차이는 학년에 따라 빈곤의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도 의미하지만 빈곤지위의 변동과 같은 불안정성을 종단적으로 포착할 필요성도 아울러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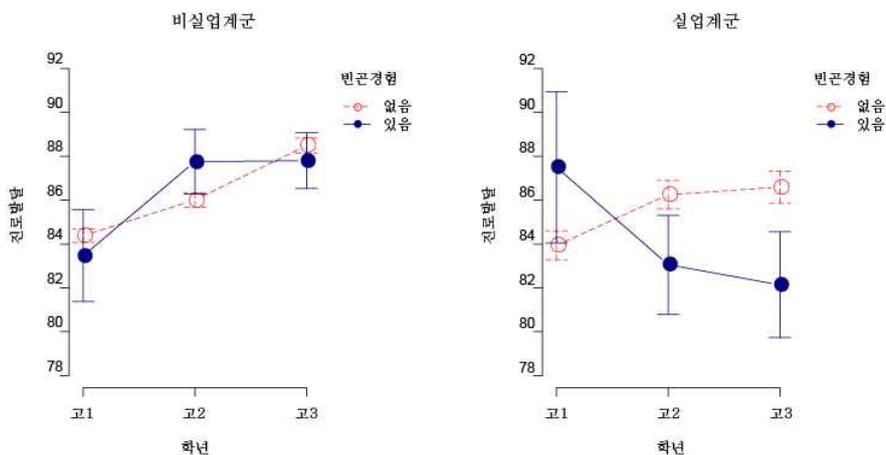


그림 4. 빈곤경험에 따른 진로발달

그림 5는 사회문화활동 수준으로 측정된 여가활동의 질과 학년별 진로발달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교차그림이다. 그림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사회문화활동의 수준별로 진로발달의 궤적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궤적의 차이는 궤적의 수평적 높이에서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났다. 사회문화활동이 0, 1 수준과 2, 3의 수준 간에는 진로발달에 대해 혼재된 양상이 나타났지만 전반적으로 사회문화활동 수준이 높아질수록 진로발달의 평균 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학년이 올라감에 따른 발달 수준 변화의 기울기는 수준별 차이가 분명하지는 않았는데, 다만 사회문화활동 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의 경우 고2에서 고3으로 이행함에 따라 더 높은 발달 수준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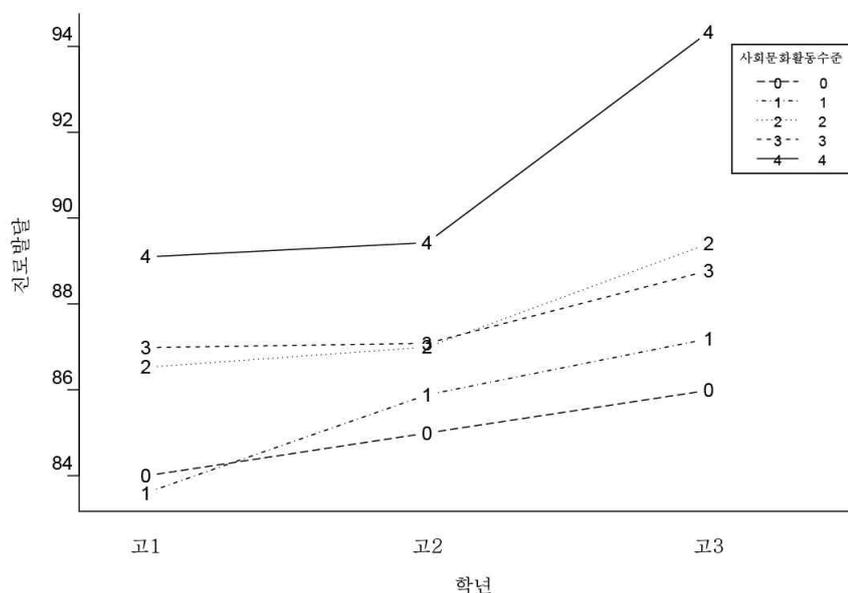


그림 5. 사회문화활동 수준과 진로발달

진로발달 수준에 대한 지금까지의 탐색적 분석 결과를 요약하자면 고등학생의 진로 발달의 궤적에는 성별과 학교유형, 빈곤 및 여가활동의 특성 등의 일정한 영향력이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른 변수의 영향력을 통제하지 않은 탐색적인 차원에서의 분석이기는 하지만 성별, 학교유형, 여가활동의 특성 등은 주로 궤적의 높낮이 자체에 영향이 있는 반면, 빈곤 경험은 궤적의 발달경로 자체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이후부터는 다른 영향 요인의 효과를 복합적으로 고려한 상황에서 주요 변수 들이 진로발달의 궤적에 미치는 영향을 잠재성장모형 분석 결과를 놓고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잠재성장모형 분석 결과

표 2는 잠재성장모형 분석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본 분석에서 모델적합도는 CFI=.962, RMSEA=.022, SRMR=.022, TLI=.945로 분석모델의 적합도가 타당한 수준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잠재성장모형 분석 결과 요약

결과 변수	변수유형	변수	Estimate	S.E.	P> z
진로 발달 (I)	가족변수	부모학력	.168	.137	.222
		부의관심	.033	.135	.807
		모의관심	.333	.145	.022
		빈곤지위(I)	-1.990	4.823	.680
	학교변수	학교유형	-.933	.952	.327
		교사관계	.185	.615	.764
		성적	2.653	.477	.000
		진로지도	.983	.414	.018
		또래관계	1.800	.792	.023
	여가변수	여가시간	.144	.223	.517
		사회문화활동	.839	.423	.047
	인구학적 변수	성별	-1.373	.693	.048
		코호트	-1.394	.692	.044
	진로 발달 (S)	가족변수	부모학력	-.031	.088
부의관심			-.020	.087	.816
모의관심			-.028	.093	.766
빈곤지위(S)			-17.802	8.064	.027
학교변수		학교유형	.912	.611	.136
		교사관계	-.405	.395	.306
		성적	-.072	.306	.814
		진로지도	.186	.266	.484
		또래관계	.498	.509	.327
여가변수		여가시간	.015	.143	.917
		사회문화활동	-.086	.272	.753
인구학적 변수		성별	.053	.445	.906
		코호트	.523	.444	.239

CFI = .964 RMSEA = .019 SRMR = .023 TLI = .945

먼저 진로발달의 궤적의 초기값(I)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경로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인 것으로 포착된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우선 가족과 관련된 변수로서 모의 관심이 진로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만 부의 관심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영향력이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자녀의 진로발달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향력이 미치는 구조가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기존연구(김성아, 2012; 박재은 외, 2011; 이경희, 윤미현, 2011)에서는 부모와의 관계가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이 혼재되어 보고되고 있는데, 이는 기존 연구들이 측정 수준에서 부모애착 등 부모와의 관계와 관련된 변수를 혼합하여 분석 모형에 투입함으로써 부와 모의 영향력이 혼재됨으로 인해 연구 결과의 일관성이 나타나지 않았을 수도 있음을 추측하게 해준다.

다음으로 학교생활과 관련된 변수들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성적의 경우 진로발달의 초기값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수정(2007)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학업성취 수준이 높은 학생일수록 진로에 대한 자신감이나 성취의식이 높을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으로, 높은 진로발달을 보이는 학생일수록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 수준이 높아지는 역의 관계도 물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 진로발달과 성적이 높은 관련성이 있다는 것은 진로에 대한 모색이 성적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한국 사회의 특징과도 닿아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진로에 대한 모색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대한 자율적인 탐색 가운데서 길러지기 보다는 성적에 의해 상당부분 결정되는 사회에서는 성적과 진로발달의 관계가 높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학교생활 관련 변수로서 진로지도 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진로발달에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관계도 진로발달에 비교적 큰 정적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친구들과의 관계만족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진로발달 수준도 높았다. 이는 친구와의 관계가 좋은 청소년일수록 진로와 관련된 준비도나 주체성, 독립성, 확신 등의 진로발달의 제 요인과 정적 관련성이 있다고 분석한 이경희와 윤미현(2011)의 연구와도 통하는 결과이다. 이 시기 청소년에게 있어 또래집단이 중요한 준거집단으로서 기능하는 것을 고려해 볼 때, 만족스러운 친구관계 형성은 진로발달에 중요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주요 설명변수인 여가와 관련해서 사회문화활동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진로발달의 초기값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가활동의 내용이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풍부한 경험을 하고 있는 학생일수록 진로발달에서의 성숙도가 높았다. 그러나 단순한 여가시간의 양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포착되

지 않았다. 이는 청소년에게 가용할 수 있는 자유시간의 양적 크기보다는, 인지적 혹은 정서적 차원에서의 긍정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여가활동의 내용적 구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구학적 변수로서 성별은 진로발달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표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다른 조건을 통제했을 때, 여학생의 진로발달 수준이 남학생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진로발달의 기울기에는 명확한 효과가 포착되지는 않았는데, 이는 비슷한 연령의 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발달을 연구한 Choi et al.(2012)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한편, 진로발달의 기울기(S)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빈곤지위의 기울기(S)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빈곤지위로의 변동을 경험하는 경우 진로발달 수준이 큰 폭으로 감퇴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진로발달의 초기치에 대해서는 빈곤경험 여부에 따른 영향력이 포착되지 않았다. 이는 기존 연구(박재은 외, 2011)와 유사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진로발달의 궤적을 종단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빈곤의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빈곤으로의 이동이라는 변화 경험이 진로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본 연구의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경제적 불안정은 청소년들의 진로발달을 퇴화시키는 중요한 위험 요소가 됨을 의미한다.

V. 결 론

지금까지 본 연구는 한국의 청소년이 자신의 미래를 꿈꾸면서 성장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보기 위해 진로발달의 개념을 통해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노력했다. 이를 위해서 가족, 학교, 여가와 같이 청소년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생활상의 다양한 요인을 포괄적으로 검토함과 아울러 진로발달의 궤적을 잠재성장모형을 통해 종단적으로 살펴보았다.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중심으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불안정은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단적인 관점에서 자원의 상실이나 불안감과 같은 심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경제적 불안정이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제적 불안정을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진로발달의 후퇴를 경험하지 않도록 지지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현장에서 청소년들이 속한 가구의 경제적 환경에 대한 파악에 있어 경제적 불안정성과 같은 생애사적인 변동 양상에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대적 박탈감과 정서적 위축은 과거의 자신의 위치와의 비교에서도 올 수 있으며, 특히 진로발달과 관련해서 경제적 불안정이 야기하는 예측불가능성의 심화는 청소년들의 내면적 성장을 억제할 수 있다.

둘째, 여가활동은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중요한 영향력이 있음을 확인했다. 단순한 여가시간의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문화활동을 경험하는 질적 차원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들의 진로발달을 위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여가활동을 스스로 발굴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학교와 가정에서 이를 장려하고 지지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행의 집체적이고 단순한 청소년 여가 관련 프로그램 제공을 넘어서 다양한 프로그램의 발굴이 요청된다. 필요하다면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화적 자원들을 발굴하고 유관 단체가 지역 수준에서 협력적 체계를 구축하는 노력도 의미 있을 것이다.

셋째, 또래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청소년일수록 진로발달 수준이 높게 나왔다. 또래들과의 만족스러운 교류가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학교와 가정에서는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진로발달을 위해서라도 친구들과 긍정적인 교류를 맺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교류 경험의 확대는 특히 최근 들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또래들 간의 괴롭힘이나 폭력과 같은 문제를 청소년 스스로가 집단내에서 탄력적으로 예방하고 극복하고 수 있도록 하는 역량을 키우는 데에도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넷째, 진로지도 경험은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이 건전한 직업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진로발달과 관련한 보다 구체화된 교육, 상담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진로지도 수준이 비교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연구(임언, 2009)가 있음을 고려할 때 향후 체계화된 진로 상담 프로그램의 구축과 관련 인력에 대한 꾸준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 명의 직업인으로서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 중요한 선행조건인 적절한 진로발달이 사회, 가족, 학교 그리고 학생 개인의 다양한 노력에 의해 이뤄지는 것임을 본 연구는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가구가 경험하는 경제적 불안정을 최소화하거나, 그와 같은 불안정을 경험한 가구의 학생들이 건강한 성장을 방해받거나 꿈을 꺾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정책적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성숙한 직업인으로서 성장해야 할 청소년의 미래가 곧 우리 사회의 미래라는 점을 상기해볼 때, 그와 같은 개입은 그 자체로 사회적 투자인 것이다. 여기에 더해 가정에서는 자녀의 성장과정 가운데서 그들에게 다양한 여가활동을 장려하고 또래와의 활발한 활동에 대한 인정과 배려의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 학교는 학생이 올바른 직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고안하고 확충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청소년들은 꿈을 꾸고, 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한 고민과 마음가짐을 성숙시켜 나갈 수 있는 토대를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결합된 노력은 한국 사회의 미래에 분명한 긍정적 결과로 되돌아오리라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 구인회, 박현선, 정익중, 김광혁 (2009). 빈곤과 아동발달의 관계에 대한 종단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61(1), 57-79.
- 김성아 (2012). 작용-개인-맥락-시간 모델의 관점에서 본 초기청소년의 환경체계들과의 인지된 관계와 진로성숙도. **한국아동복지학**, 38(0), 7-37.
- 박미진, 최인화 이재창 (2001).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13(1), 125-146.
- 박완성, 김미숙 (2009).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 및 진로성숙도의 관계: 수도권 3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진로교육연구**, 22(4), 85-108.
- 박재은, 이정애, 이지연, 정익중 (2011). 청소년기 애착이 진로성숙도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빈곤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3(3), 93-116.
- 박현선, 정익중, 구인회 (2006). 빈곤과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 간의 관계. **한국사회복지학**, 58(2), 303-330.
- 신효정, 이문희 (2011). 진로성숙 발달에 관한 4년 종단 연구: 스트레스, 공격성, 우울의 효과. **청소년학연구**, 18(7), 139-161.
- 신희경, 김우영 (2005).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결정 동기에 관한 연구: 개인, 가정, 학교의 역할. **직업능력개발연구**, 8(2), 47-83.
- 이경희, 윤미현 (2011). 청소년의 부모요인, 친구애착 및 자아존중감과 진로성숙도와 의 관계. **한국가족복지학**, 16(1), 175-199.
- 이유경, 류재윤, 방홍복 (2012). 부모의 긍정적 진로관여가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비교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9(2), 129-154
- 임연 (2009). OECD국가의 직업교육 유형별 진로지도 현황 비교. **직업능력개발연구**, 12(2), 1-20.
- 장 자크 루소 (2006). **에밀 (권응호 역. 3판)**. 서울: 홍신문화사.
- 정윤경 (2002).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에 관한 구조방정식모형의 구축. **직업능력개발연구**, 5(2), 147-172.
- 최수정 (2007). 중등단계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사회경제적 수준 및 학업성과와 진로

- 성숙변화의 관계에 대한 구조방정식 변화모형. *한국청소년연구*, 18(3), 31-57.
- 山田昌弘 (2004). *希望格差社會: '負け組' の絶望感が日本を引き裂く*. 東京: 筑摩書房.
- Choi, S., Hutchison, B., Lemberger, M. E., & Pope, M. (2012). A longitudinal study of the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parental attachment and career maturity of south korean adolescents.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60(2), 163-177.
- Kelly, J. R., & Kelly, J. R. (1994). Multiple dimensions of meaning in the domains of work, family, and leisur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6, 250-274.
- Munson, W. W., & Savickas, M. L. (1998). Relation between leisure and career development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3(2), 243-253.
- Savickas, M. L. (1984). Career maturity: The construct and its measurement, *vocational guidance quarterly*, 32(4), 222-231.
- Tinsley, H. E. A., & Tinsley, D. J. (1986). A theory of the attitudes, benefits and causes of the leisure experience. *Leisure Sciences*, 8, 1-45.

ABSTRACT

A longitudinal study of the developmental trajectory of the career maturity of adolescents : The impact of economic instability and leisure

Roh, Beoprae*

The main purpose of the current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evelopmental trajectory of the career maturity of South Korean adolescents and the factors which play a part in creating the trajectory. Many studies related to this issue have been conducted and have contributed to both the practical and theoretical understanding of this issue. Considering some limitations involved in building the research model and the methodology of previous research conducted into this issue, this study has attempted to set about creating a more comprehensive research model based on a longitudinal approach. Especially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effects of economic instability and leisure upon adolescents' career maturation. The growth curve model analysis was conducted for the purposes of this research. A number of measures which can assist in the implementation for related education policies are also suggested in this study.

Key Words : development of career maturity, economic instability, leisure,
growth curve model, longitudinal study

투고일 : 2013. 6. 10, 심사일 : 2013. 8. 1, 심사완료일 : 2013. 8. 12

* Suicide and School Mental Health Institute

